

‘천년 울릴 소리’ 손끝으로 감지

신문박의

북만들기 37년 임선빈씨

“북은 가족만 켜준다고 해서 소리가 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혼을 담아 만들어야만 비로소 살아있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때 잠실밭에 울려 퍼진 웅장한 북소리를 기억한다. 그러나 창작 그 소리를 만들어 낸 장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 주인공은 37년간 오직 북만들기 화일을 걸어온 지체·청각 장애자 임선빈씨(47세).

임씨는 작년 1월부터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화합을 기원하는 ‘안양시민의 북’을 제작하고 있다. 높이 220cm, 울림판 240cm, 둘레 820cm, 무게(좌대포함) 650kg의 국내 최대 규모의 북이다.

그는 북 제작에 앞서 사발을 썼다. 국내에는 울림판에 붙임만한 큰 소가죽이 없었다. 수소문 끝에 6백kg나 되는 미국산 소 11마리를 샀다. 가죽을 벗겨 재보니 겨우 2마리만이 235cm를 넘었다. 울림판에 가죽을 씌우는 전날 밤, 목욕재계하고 자수자성(自修自成)의 참신을 하며 꼬박 날을 썼다. 이른 새벽 관새를 보살을 부르며 작업에 몰입했지만 양쪽의 사이즈가 맞지 않았다. 아꼈었다. 석가모니불을 부르며 가죽을 펴고 또 펴기를 수차례, 부처님이 감응했는지 크기가 맞았다. 조르고 풀고 풀 수 없어 해가면서 소리를 조율했지만 일정한 웅장한 소리라는 거리가 멀었다.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땐 왜 이런 일을 했나 하는 후회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껏 모든 어려움을 한쪽 발로 지탱해 온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오기가 나더군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하루 12시간 이상 북 제작에 정성을 쏟았다. 북 만들기가 잘 돼 신바람이 나면 관새음보살을 불렀다. 일이 잘 안풀릴 때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좌선을 통해 마음가짐을 새로이 했다. 그리고는 ‘나우아미타불’을 외치



조르고 풀고 풀고 거듭하며 한줄 한줄은 정성을 더해 북만들기에 몰입하고 있는 임선빈씨.

“자만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조르고 풀고 단청도 혼자힘으로
북 두드리다보니 청력도 잃었다
하지만 가슴울리는 소리에 ‘뿌듯’
“이제 겨우 이력 붙었어요” 겸손
76가지 전통북 원형복원 ‘발원’

었다. 그럴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들면서 삶의 활기가 느껴졌다. 비록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이지만 손 끝에서 느껴지는 소리의 떨림으로도 천년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다. 1년여 노력의 결실이었다.

“울림판이 살아 소리쳐더군요. 천년은 능히 이어갈 수 있는 소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청을 시작한 뒤에는 거의 뜰은으로 밤을 지냈다. 작업장이 임시천막 안이라 비가 오면 행여 단청이 지워질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마리의 용이 사이좋게 여의주를 문채 오색찬란한 구름 위를 노니는 모습에 모든 시름도 다 사라졌다. 안양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상징하듯 두 마리의 용이 서로 희롱하며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말이면 마침내 안양시민의 북 제작이 끝났다. 그가 만든 북이 안양시민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다.

임씨는 스승 황용욱선생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다.

울고 웃으며 북에 미쳐 살았던 37년. 가슴 한 편에 솟구쳐 오르는 뭉클한 감동이 느껴졌다. 11세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 막상 집을 나섰지만 소아마비 장애인이라는 주위의 따가운 눈총만이 있었다. 그러다가 만난 이가 스승 황용욱씨. 북 만드는 기공을 전수해 줬을 뿐 아니라 가슴에 와닿는 참된 북소리를 가르쳐 줬다. 북 만드는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은 그였지만 그다지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다.

“막상 스승님이 돌아가시니까 일이 막막하더군요. 그때 머리를 쥐고 팔공산에 있는 한 절을 찾았습니다. 단청이 눈에 들어오는데 더 이상 발을 옮길 수가 없어 그냥 돌아 내려왔죠.”

배고픔과 장애인이라는 편지를 못이겨 스님이 될까 하는 생각도 해 본 것이지만 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는 없었다. 스승의 친구인 관소리북 전문가 박일호씨와 인간문화재 박근식씨를 찾아 더욱 북만들기에 전념했다.

한때 만물상에서 장사속으로 북을 만들어 팔면서도 “북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 돼” 하는 스승의 유언을 잊지 못해 다시금 힘든 길을 택해야 했다. “북을 만들어 있어 지만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또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사발을 해라.” 임씨는 스승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으며 살고 있다.

임씨는 태어날때부터 청각장애자는 아니었다. 매일 좁은 공간에서 북을 두드리며 소리를 잡다보니 청력이 약해진 것이다. 보청기를 끼어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지 6년이 됐지만 꼭 북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손바닥으로 울림판을 두드리 전해져 오는 떨림을 손끝으로 느낀 뒤 소리의 퍼짐을 계산해 울림판을 조이고 푸는 방법으로도 훌륭한 북을 만들 수 있다. 대개 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재료 구하기 때문, 품만들기 때문, 조이고 푸는 일 때문, 단청 때문 하는 것과 달리 임씨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혼자 해내고 있다.

임씨의 호는 법고(法鼓), 뜻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울리는 참된 북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에서 스스로 지은 것이다. 대북을 만든 후에는 꼭 자신의 호에 관한 그림을 좌대 밑에 그려넣는다. 사람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진한 여운의 참북을 만들어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37년을 오로지 북을 만들어 살아왔지만 이제 겨우 눈을 뜬 상태”라며 겸손해하는 임선빈씨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다. 작은 공방을 만드는 것. 그 속에서 자신의 처지와 같은 장애인들의 서러움을 후련하게 씻어줄 북을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

“옛 선조들의 한과 기쁨을 담은 옛 북을 재현할 사람이 거의 없다”며 아쉬워하는 그에게 관소리북으로의 입상은 가능성을 제시한 일이었다. 과거 76가지 북의 원형을 복원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 길을 걸겠다는 임선빈씨.

비록 지체·청각장애자인 그였지만 마지막 악수를 건네는 그의 모습에서 시방세계를 깨우치는 법고의 울림을 들을 수 있었다.

글=윤기석 사진=고영배 기자

취재수첩 88올림픽·도선사·청와대북 등 제작

임선빈씨는 88올림픽북을 비롯 청와대 춘추관북, 대전엑스포북, 임진각 망향의 동산 통일기원북 등 국내 5개 대북 제작에 모두 참여했다. 그리고 지금 중요유물문화재 제77호인 이봉주(남창유기 설립자)씨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안양시에 기증할 국내 최대의 대북을 만들고 있다.

임씨가 대북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88올림픽때. 잠실주경기장을 도는 용고(龍鼓)행렬 가운데 울려 퍼지는 북소리를 들으며 느꼈던 그 기쁨이 현재의 대북장인 임씨를 있게 했다. 그러나 임씨는 이에 앞서 86년에도 대북을 제작한 경험이 있다. “88올림픽북은 한 번 실례를 거친 후에 만들어낸 북입니다. 지금 서울 도선사에 있는 대북이 처음 제작한 것인데, 소리가 좋지 않아 다시

만들었죠”라고 일화를 밝힌 그는 “그래도 우리나라 큰 북은 모두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라며 활짝 웃는다.

올림픽북은 세계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통일기원북은 휴전선너머까지 들릴 수 있도록 용정해야 하며, 청와대북은 민심을 잘 살피달라는 따가운 북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법고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뭉클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임씨가 만든 북에서 나는 소리는 유일한 소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은 소리를 낸다.

임선빈씨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기념하는 대북을 제작, 좀더 크고 우렁찬 북소리로 그날의 기쁨을 맞고고 싶어한다.

무욕과 달관의 세계를 담은
노철학자 고희곤 수상집

하늘과 땅과 인간

‘선의 세계’의 저자
고흥곤옹이 털어놓는
살아온 이야기

92년의 결코 풀지 않은
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인생사의 회노예락들.
자신을 둘러싼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민족의 애환과
전망 등이 맛깔스럽게
그려지고 있다.

서양철학으로 시작했지만 불교의 선사상에 매료되면서
평생 선(禪)적으로 살고자 했던 노철학자

그의 삶은 소박하다. 물욕이 없으므로 청빈하고, 지식에조차
탐욕스럽지 않아 감다하게 박학하지 않고 단순하며 청정하다.
소박하기에 낭만이 있고, 따라서 그의 시선은
냉철하게 이지적이기보다 다정다감하고 훈훈하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 720-9372,3 FAX : 723-0646



임선빈씨가 만든 북. 임씨는 단청까지의 전과정을 손수 제작한다.

법고·용고등 종류 다양 부처님 재세때도 북사용

판스킵

북은 우리 서민들의 삶과 친숙한 악기이다. 잘 건조된 나무로 몸통을 만들고, 쳐서 소리를 내는 양면은 소가죽을 사용한다. 이때 북의 가죽은 암소와 수소의 가죽을 각기 양면에 부착해야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북이 쓰인 것은 고구려 안악고분 벽화 주악도에 입고(立鼓)가, 행렬도에 담고(擔鼓)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미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통음악 연주에 쓰이는 북은 20여종이 되나 그 중 삼현육각(三絃六角) 연주에 쓰이는 좌고(座鼓), 행진음악에 쓰이는 용고(龍鼓), 북춤에 쓰이는 교방고(敎坊鼓), 불교의식

에 쓰이는 법고(法鼓), 사당패나 소리꾼이 소리하며 치는 소고(小鼓), 관소리장단에 쓰는 소리북(고장북), 농악에 쓰이는 매구북(매구악북) 등이 주로 쓰인다.

불경에도 북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북을 사용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주로 그 용도는 대중에게 크고 작은 일을 알려거나 불교의식인 법회(法會)의 장단에 맞춰 치게 되며, 법종각에 사물(四物)로 있는 북은 아침 저녁 예불 때 사용하게 된다. 이때 북을 치는 이유는 축성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또 정법(正法)의 북을 쳐서 시방세계(十方世界)를 깨우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이 경우 북의 몸체는 보통 용을 그려넣기도 하고 두드리는 부분에는 만자(万字)를 태극모양으로 둥글게 그려 장식하기도 한다.